

차보험, 중고시세 하락 보상대상 확대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출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수리비용의 최대 15%였던 보상금액은 최대 20%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 차량이 파손되는 것 외에도 중고시세 하락으로 불이익을 입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2년이 초과한 차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액이 수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출고 2년→5년 이내' 보상금액, 수리비용 최대 15%→20%로 늘어나

리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된다.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2년 이하면 15%, 2년~5년 이하면 10%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이 출고 6개월 뒤 교통사고를 당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현재는 225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

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재는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은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낭비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판금과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한다. 경미한 사고로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이나 찍힘 등을 이르면 7개 외장부품은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유형을 결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윤러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지급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며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이뱅크, 온라인도 가맹점 수수료 0% '케뱅크페이' 출시

케이뱅크가 서울시 결제서비스 '제로페이'에 가맹점과 소비자 혜택을 더한 '케이뱅크페이(케뱅크페이)'를 출시한다.

케뱅크페이는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한 최대 500만원까지 전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케이뱅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앱 전용 결제서비스 케뱅크페이와 전용 대출 서비스 '쇼핑머

니'를 소개했다.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제로페이'에 가맹점과 소비자 혜택을 더한 '케이뱅크페이(케뱅크페이)'를 출시한다.

케뱅크페이는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한 최대 500만원까지 전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케이뱅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앱 전용 결제서비스 케뱅크페이와 전용 대출 서비스 '쇼핑머

니'를 소개했다.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제로페이'에 가맹점과 소비자 혜택을 더한 '케이뱅크페이(케뱅크페이)'를 출시한다.

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케뱅크페이는 QR코드 등 간단한 인증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다. 케이뱅크의 주주 KT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제로페이 민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이용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와 달리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교보문고, 이마트, 초록마을 등 약 3000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모든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성욱 케뱅크 실무담당 팀장은 "KT 제휴사 이니시스 등과 협의해 결제 가능 가맹점을 다음 달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 결제는 케뱅크 앱 화면에서 '페이결제하기'를 누른 후 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온라인 결제는 결제수단 진행단계에

슬립k대출은 7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쇼핑머니 대출은 8등급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쇼핑머니 대출은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한도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 반응 등이 긍정적인 경우 무이자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케뱅크페이를 이용하는 선착순 5000명에게는 코드K자유적금 상품의 0.4%p 추가 우대급 쿠폰을 준다. 적용시 최고 연 3.2%p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31일까지 케이뱅크에 신규가입한 고객이 1만원 이상 케뱅크페이로 첫 결제할 경우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준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보다 새로운 금융 경험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잘나가는 인삼 수출...정부 "2억불 돌파할 듯"



지난해 우리 인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사상 최초로 수출 2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 수출액은 1억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 품목 중 김치,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시장 뿐만 아

니라 일본과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중국이 5100만 달러, 일본 3300만 달러, 홍콩 2900만 달러, 미국 2400만 달러, 대만 2000만 달러 순이다.

품목별로는 홍삼(뿌리삼) 수출이 전체 수출의 39.8%(743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홍삼 수출의 절반이 넘는 53.6%는 중화권으로 나갔다. 일본이나 미국, 베트남에선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음료 등 가공품이 잘 나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의 뿌리삼 재고 소진과 추가 수요의 확대, 일본·미국·동남아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가 인삼 수출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남지방우정청,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총력

다음 달 8일까지...소포 우편물 366만 통 소통 예상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강도현)은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 중 소포우편물은 지난 해보다 29.4% 증가한 366만 통이 배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500여 명의 인력과 700여 대의 운송차량 및 각종 소통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우편물이 적기에 소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소통기간 중에는 당일 특급 소포우편물의 접수가 중지되며,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생불 등 부패성 있는 우편물의 접수가 제한될 예정이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소통에도 고객의 소중한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우체국은 2월 2일까지 배달을 실시하며, 설 명절 이전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1월 31일 이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LG전자, 엑스봄 AI 싱큐 출시

LG전자가 프리미엄 인공지능 스피커 'LG 엑스봄 AI 싱큐(ThinQ) 모델명:WK7'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LG 엑스봄 AI 싱큐는 LG전자의 독자적인 오디오 기술뿐만 아니라 영국 명품 오디오 브랜드 '메리디안 오디오(Meridian Audio)'의 뛰어난 기술을 더해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